

시·도지사協서 지방 발전 촉구 목소리 봇물

姜시장 “수도권 집중 현상 국가 질병” 진단 金지사 “쌀값 안정 근본적 대책 마련” 강조 중앙-지방 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발전을 촉구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국가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과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 질병'으로 진단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분명히 갖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원→5조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부직 부지사제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 김 지사는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만장일치 추대를 받아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재정기자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경선서 이병훈 60% 득표...신정훈 만장일치 추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을, 전남도당위원장에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병훈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관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60%를 득표해 40%의 득표율을 보인 최희용 후보를 제쳤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의원 간 합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선출해왔는데 이번엔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출마해 경선이 치러졌다.

이병훈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은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당위원장으로서는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강진 제1실 내체육관에서 제5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정훈 국회의원을 새 전남도당 위



이병훈 신정훈

원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승남 전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김원아·주철현·소병철·서동용·이개호·윤재갑 국회의원과 서동욱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등 도당 전국대의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 연설

을 통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해준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전남도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유능한 전남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고 청년·여성 지도자 양성 등 인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신임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민선 3·4기 나주시장, 대통령비서실 농업비서관실 농업업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재정기자

시의회·시민단체협의회 소통 강화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정무창 의장이 개원사에서 밝힌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정무창 의장은 "조례·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열린의회'를 만들겠다"며 "간

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의미 있는 공동 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시의회와 기후위기에 대비한 급진적 대책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박미경(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17개 단체 18명이 참석했으며 시의회는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성기기자

북구의회, 전국 최초 공무원 직장協 설립

근무환경 개선·고충처리 협의...초대 회장에 한성인 주무관

광주 북구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 전국 최초로 의회사무국 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 북구의회는 21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직장 내 협의 기구로 노동조합 설립의 사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직장협의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18명 전원이 가입했으며 올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과 별도의 협의회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북구의회는 지난 18일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직장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과 5명의 협의 위원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에는 한성인 주무관이 당선돼 앞으로 2년 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도 이날 총회에 참석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축하하고 직원들의 뜻을 적극 지지했다. 한성인 회장은 "초대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관장인 의장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의장은 "북구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권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승희기자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KDLC 공동대표 당선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이 최근 대전 시 서구문화원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총회에서 기초의회 의원 공동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군·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KDLC 총회에서 제5기 상임대표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광역의회 의원 공동대표에 엄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이날 공동대표로 당선된 강필구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면서 지

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 강화·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의장은 9선의 전국 최다선 의원으로 3번의 전남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장,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자치구의의회장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영광=김동규기자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연성,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